

##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달기

아름다운 우리 도량 속리산 법주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각단 부처님전에
연등공양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정도량에 평화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고
만복을 지으시어 세세생생 불은 가피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대웅보전 (광명의 등)** : 20만원 / 삼존불
- **능 인 전 (진리의 등)** : 10만원 / 사리불
- **약 사 전 (치유의 등)** : 10만원 / 약사여래불
- **원통보전 (지혜의 등)** : 10만원 / 관세음보살
- **명 부 전 (원력의 등)** : 10만원 / 지장보살
- **산 신 각 (수호의 등)** : 10만원 / 산신, 칠성, 독성
- **영 가 등 (왕생의 등)** : 10만원 / 명부전 · 아미타전



불보살님의 살피심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떤 전각에 올리셔도 인연에 따라 두루 살펴주십니다.
등공양은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미 불은가피는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줌으로써
누군가 나를 만난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정스님의 행복한 삶 中 –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6 | 3

# 부설 거사 浮雪居士(1)



부설 거사는 신라 선덕여왕(632~647) 때의 사람으로 속명은 진광세陳光世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비범하였으며 스님을 보면 반가워하고 살생하는 것을 보면 슬퍼하더니 홀연 불국사로 출가하여 법명을 부설浮雪이라 하였다.

부설은 도반道伴인 영희靈熙, 영조靈照 스님과 함께 묘적암을 짓고 수행하고 있었다. 그 뒤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유람하며 오대산으로 가던 중 두릉(杜陵, 현 전북 김제시)에 당도하여 불심이 깊은 구무원仇無冤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무원의 딸인 묘화妙花는 날 때부터 벙어리였으나 부설 스님의 잘생긴 용모와 유창한 언설에 감화되어 말문이 열렸다. 또한 부설 스님을 사모하게 되어 상사병이 나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면 죽겠다며 두 모녀가 매달렸다. 부설 스님은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 몸이 파계해서라도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인연으로 생각하고 묘화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부처님의 자비방편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자비로다. 음행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죽게 하는 것은 더 큰 파계로다."

두 도반은 부설에게 실망하고 떠나면서 십 년 뒤에 만나 도력을 시험하기로 하였다. 묘화와 혼례를 치른 부설은 아들 등운과 딸 월명을 낳고 살다가 남매가 성장하자 아이들을 부인에게 맡기고, 홀로 초막에서 수도에만 전념하였다.

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옛 도반인 영희, 영조 스님이 찾아와 부설 거사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부설은 세 개의 병에 물을 가득히 넣어 줄에 매달아놓고 병을 깨뜨리되 물은 쏟아지지 않는 것으로 서로의 공부를 시험해 보자고 하였다. 영희, 영조 스님이 병을 치자 병이 깨어지며 물도 쏟아졌으나 마지막에 부설이 병을 치자 병은 깨어졌으나 물은 병 모양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 法住會報

2026 3 | 통권 410호



2 **벽화이야기** 부설거사 (1)

4 **이달의 법문** 봄바람에 깨어나는 마음의 씨앗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원결怨結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의 힘 정덕 스님

8 **수행여화** 밭일 한 시간, 낮잠 두 시간 현진 스님

10 **걸망메고** 인연 따라 다시 법주사에서 정암

12 **인도 건축미술 순례** 슈라와스띠 제따와나 안필섭

16 **법주사 템플스테이**

17 **법주사 공양미 / 법주사 행사일정**

18 **법주사 소식 / 말사소식**

19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20 **아름다운 법주사 법주회 / 국악합창단 / 다도반 법우님을 모집합니다**

21 **승려복지 후원 안내**

22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안내**

23 **병오년 산신재일 기도안내**

24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70(단기4359)년 3월호 통권 410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인 · 무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 봄바람에 깨어나는 마음의 씨앗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찬 바람이 잦아들고 대지에 온기가 도니, 산천초목이 기지개를 켭니다.
사람들은 이를 일러 봄이라 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이라 찬탄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에게 봄은 단순히 계절의 바뀜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의 땅을 일구어
지혜의 씨앗을 심는 정진의 때입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흔히 '자연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꽃은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눈보라 치는 추위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안으로 갈무리하며 묵묵히 견뎌온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네 마음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뿌리가 깊어지듯,
묵묵히 이어가는 일상의 기도가 결국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3월은 입춘을 지나 경칩에 이르며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겨울잠은 깨었는가?"
밖으로는 꽃구경을 가고 새봄의 활기를 즐기면서도, 정작 내 안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은 여전히
겨울의 동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성냄을 녹여내고 자비의 온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수행의 길은 때로 멀고 험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낙숫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 이치를 보십시오. 물방울 하나는 지극히 약하지만,
쉬지 않고 거듭되는 그 정성은 무거운 바위조차 이겨내는 법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정진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큰 깨달음을 얻으려 욕심내기보다, 날마다 떨어지는 낙숫물처럼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에 매진할 때,
비로소 견고한 아집我執의 벽이 무너지고 참된 지혜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물이 순리대로 흐르듯, 우리의 삶 또한 중도中道의 지혜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집착과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불안을 낳고,
지나친 위축은 우리를 정체하게 만듭니다. 탐욕에 치우치지 않되 성실히 노력하며,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삼월에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속리산의 산천이 푸르러가듯 여러분의 신심도 날로 깊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충만하여, 마음속에 심은 지혜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지스님 법문

# 원결怨結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의 힘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제가 종종 들려드리는 중국 양나라 대부 송취宋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웃 나라 초나라 사람들이 질투심에 양나라의 수박밭을 망쳐놓았을 때,
송취는 보복 대신 몰래 초나라 밭에 물을 뿌려 그들의 농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그 따뜻한 배려가 원수 같던 두 나라를 화해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원결怨結을 푸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봄이 오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봄은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뀔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제가 종종 들려드리는 중국 양나라 대부 송취宋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웃 나라 초나라 사람들이 질투심에 양나라의 수박밭을 망쳐놓았을 때,
송취는 보복 대신 몰래 초나라 밭에 물을 뿌려 그들의 농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그 따뜻한 배려가 원수 같던 두 나라를 화해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원결怨結을 푸는 법'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모질게 대한다고 해서 나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맞선다면,
그것은 끝나지 않는 겨울 속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비의 물을 준다면,
얼어붙었던 상대의 마음도 봄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겨울, 혹여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서운함으로 마음 앓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일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그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법주사의 맑은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미움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지만, 용서와 이해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좋은 거름이 됩니다.

# 밭일 한 시간, 낮잠 두 시간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오늘 구절초 꽃대를 잘라 주다가 그 씨가 눈동자에 떨어져 얼굴을 씻으며 “올봄엔 내 눈에서도 구절초가 자랄지 몰라!” 말했더니 깔깔 웃었다.

연일 한파가 지속되더니 요 며칠은 기온이 따스했다. 이렇게 날씨가 풀어지면 몸을 움직여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후엔 말라버린 구절초를 잘라내고 그 주변의 낙엽을 치우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일을 해보면 ‘사람 손이 참 무섭다’는 걸 실감한다. 일을 시작할 때는 ‘저 일을 언제 끝내나?’하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작업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넓은 바다도 한 방울의 물에서 비롯되었고, 태산도 한 줌의 흙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은 정확한 진리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일도 소매를 걷고 도전하면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인 것이다. 길을 나서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목적지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래서 옛사람들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남겼다.

이번에도 이런 정신으로 미루었던 일을 감행했다. 시골 할머니가 ‘일은 게으른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손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 일거리를 보면 눈은 게으름부터 내지만 결국 부지런한 손이 해결한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일감을 눈으로 만 보고 겁나서 화들짝 뒤로 물러설 게 아니다. 사람의 손길이 모이고 쌓여야 명작을 빚어낼 수 있다.

일전에 3평짜리 움막 암자에 있는 후배 스님에게 다녀왔는데 그의 처소에는 ‘한끼 선원’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마당 한쪽에 주상절리를 닮은 넓은 암반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그 스님은 한 달 내내 삽 한 자루로 밤낮없이 흙을 파내고 호미로 긁어 돌의 본래 모습을 발견했단다.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라 그의 부지런한 손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그곳에서 연약한 것 같지만 사람의 손길이 무엇이든 가능케 만든다는 걸 목격하고 왔다.

여기 정원 일도 수만 번의 손길이 가야 하는 곳이다. 겨울이라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질서가 고요하지 못하게 된다. 가을 꽃대가 남아 있거나 낙엽이 웅크리고 있으면 겨울 정원의 민낯을 만날 수 없다. 비록 겨울일지라도 오늘처럼 그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나면 정원은 더 정직해진다. 비어있으나 흐트러짐 없이 평화로울 것.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겨울 정원의 풍경이다.

어제는 일본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밭일 1시간, 낮잠 2시간〉이란 책을 읽었다. 91세 슈이치와 88세 히데코는 아이치현의 통나무집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밭일은 한 시간, 낮잠은 두 시간’으로 정해 놓고 차근차근 느리게 인생을 보내고 있다. 그들 부부는 “오늘 중에 다 끝내려 하지 말고 조금씩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잘하는 지름길”이라 말했다. 책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천천히, 나이에 맞게’ 자기 나름의 속도로 즐기라는 것이었다. 젊은 혈기라면 한꺼번에 내쳐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그 속도에 맞추어야 과정도 즐겁겠구나 싶었다. 무슨 일이든 무작정 달려들면 몸도 상하고 일에 대한 흥미도 반감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나도 근래엔 일 욕심을 마구 부리지 않는 편이다. 체력 안배를 잘해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괜잖다 생각하면 마음도 가볍다. 무슨 과제처럼 그날 완료하려고 하면 애써 무리하게 되니까 욕심은 금물이다. 예전 같으면 체력이 고갈되어 이맘때쯤이면 꼭 몸살을 앓고 지나갔는데 올해는 아직 별 탈 없이 지나고 있다. 정원 일 또한 집중은 필요하겠으나 매몰될 필요까지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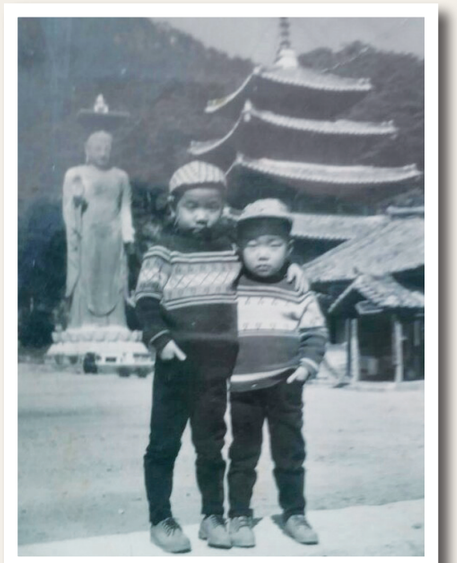
진정한 여유와 안식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리듬이다. 그 조화가 원만하지 못하면 일의 노예가 되거나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어라 일할 게 아니다. 이 조화가 어긋나면 정원은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말기에 나 또한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제는 무릎관절이 상하거나 허리 근육에 이상이 올 때까지 정원 일에 몰두하지 않는 편이다. 한때 무릎 기능이 고장 나서 절룩거리며 다녔던 적이 있기에 최대한 조심한다. 이 일을 오래 즐기려면 일 욕심을 줄이고 천천히 해야 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오늘 어떤 일을 마무리 한다 해도 내일이면 또 다른 일이 생기므로 완벽한 마무리는 없다. 일을 털고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언제나 그날의 마무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토닥토닥, 가끔은 쉬어가도 괜잖아!’라는 글자판을 만들어 우리 정원에 설치했다. 봄날을 기다리는 것은 쉬어가라는 뜻도 있다.

# 인연 따라 다시 법주사에서

정암 법주사 종무소 총무주임

아침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며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자 합니다.
법주사의 따뜻한 품과 평안함이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한 뒤,
고향 법주사 종무소에서 새로운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한 여정을 내려놓고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게 된 것을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아침은 부모님의 예불 소리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 속에서
들려오던 목탁 소리와 염불 소리는 어린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법주사를 찾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고, 그 시간들은 제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내를 걷다 보면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자리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날들, 형제들과 뛰놀던 모습,
친구들과 나누었던 웃음들이 떠오르며
법주사는 저에게 단순한 사찰을 넘어 삶의 추억과
인연이 깃든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사계절 속에서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는 산사의 풍경은
언제나 마음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전해줍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공직에 몸담아
지역과 시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내려놓고, 종무소에서
사찰을 찾는 불자님들과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또 다른 방식의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주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시 삶의 힘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이 단순한 직무를 넘어
수행의 연장선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명부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
경내를 오갈 때마다 마음을 모아 인사를 드립니다.
가까이에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며, 이곳에서의 삶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침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며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자 합니다.
법주사의 따뜻한 품과 평안함이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새벽 예불 소리로 시작된 인연이
오늘의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슈라와스띠 제따와나

안필섭 원광디지털대 교수

**기원정사의 정식 명칭은 '제따의 숲, 아나타삔다다의 정원'이라는 뜻의 제따와나 아나타삔다다라마이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 번역한 명칭이 기수급고독원이다. 이 명칭은 다분히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승단에 대한 기부자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함이다.**

델리에서 출발한 기차는 14시간을 넘게 달려 예정보다 2시간 늦은 10시에 우리를 목적지인 곤다(Gonda)에 내려주었다.
안개가 자욱했던 곤다 역은 델리역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기차역이었지만, 주변의 큰 도시인 럭나우(Lucknow)를 비롯해 암리차르(Amritsar), 델리(Delhi), 고락뿌르(Gorakhpur), 뭄바이(Mubai) 등 인도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나름 교통의 요지이다.
물론 곤다는 대부분의 인도사람들은 들어본 적 없는 웃따르 쁘라데쉬(Uttar Pradesh)의 작은 동네일 뿐이다. 기차역을 빠져나오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인 우리를 둘러쌌고, 그중에 콧수염이 가장 풍성한 이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슈라와스띠!"
"오, 한국사람? 코리아 템플?
슈라와스띠 2,700루피!"
"아니, 아니. 1,600루피!"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기다려."
흥정은 너무도 쉽게 끝났다.
약 1시간(45km) 정도 거리의 슈라와스띠까지 차량 비용은 보통 1,600루피라고 미리 알고 있었으니, 단박에 그 가격을 제시하자 서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쉽게 성사되었다.
잠시 후, 그의 배웅을 받으며 흰색의 SUV 차량을 몰고 온 기사와 함께 슈라와스띠로 출발한다.
부처님 성지인 슈라와스띠는 불교 경전에서는 사위성舍衛城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제따와나(Jetavana), 즉 기원정사祈園精舍가 있던 곳이다.
역시나 델리를 벗어나니 도로의 사정은 그리 좋지 못하다. 아그라만 하더라도 유명한 관광지라서 도로포장은 꽤 좋은 편이었는데, 곤다와 슈라와스띠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드디어 인도를 여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만큼 좁고 거칠었다. 인도의 겨울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 답답했지만, 아이들, 소, 생소한 나무, 작은 마을의 가게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낯선 풍광이 있어 지루함을 덜어주고 남음이 있었다.
슈라와스띠 마을을 지나 잠시 동쪽으로 달리니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반가운 천축선원의 간판이 우리를 반긴다. 차량은 경내로 들어가 우리를 내려주었고, 천축선원의 숙소를 관리하는 와르단 샤캬(Vardan Shakya)씨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준다. 그에게는 사전에 메일을 보내 우리의 방문일에 스님께서 사중寺中에 계시는지, 숙박은 가능한지 물었고, 그렇다는 답장을 받았다.
그는 우리를 법당이 있는 쪽으로 안내했는데, 주지스님이신 대인스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합장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함께 맞아주신 적조행 보살님께 우리에게 숙소를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우선 법당에 참배부터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삼배로 예를 갖추어 부처님께 우리의 방문을 고하였다.
우리가 안내받은 방은 화장실이 딸린 침대 2개의 2인실로, 아주 훌륭한 시설은 아니었지만 하룻밤 묵기에는 손색이 없다. 마침 가져간 전기매트가 고장 났는데, 방에서 한기가 느껴져 어쩌지 싶었지만, 침대를 살펴보니 시트 위에 전기매트가 깔려 있어 한숨 덜었다. 잠시 후 시간이 되어 공양간에 가니 된장국이 있어 현지의 기름기 있는 식단에 은근히 지친 속을 달랠 수 있었다.
슈라와스띠의 '기원정사 천축선원'은 대인스님께서 1999년에 문을 연 수행도량이다. 단돈 3천만 원을 시작으로 땅을 사고, 초가집 세 칸을 올려 시작한 천축선원이 지금은 학생 수 140명의 초등학교와 보건소를 갖추고 있으며, 250명의 순례객이 일시에 머무를 수 있는 큰 도량이 되었다. 그렇게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한국 순례객을 비롯한 여러 나라 순례객들의



폐허가 된 유적



간다꾸띠



아난다 보리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천축선원이다. 공양을 마치고,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온 비구니 스님과 함께
오토릭샤를 불러 기원정사와 그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나는 이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다. 남아 있는 유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주변의 풍광과 분위기를
우선하자고 말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다.
그때 있던 것들이 지금은 없다.

하지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풍토는
크게 변함이 없다. 나는 중도의 이치를 깨달은
성자께서 이곳 땅을 처음 밟으며 느꼈을 온도와
습도, 색깔과 냄새를 안아보고 싶었다.
도착한 기원정사의 터는 생각보다
꽤 넓은 곳이었다. 전체적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은 느낌인데, 적갈색 벽돌로
쌓은 건물터 주변으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 옛날,
장자長者 아나타삔다다(Anāthapiṇḍada)가
마가다(Magadha)국의 태자인 제따(Jeta)로부터
성 밖에 있던 이 동산을 구입해 승단에
보시하였을 때에는 이렇게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다. 하지만 마을의 중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 지대가 약간은
다른 곳에 비해 높다는 점, 그리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저수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나타삔다다가 왜 이곳을 눈여겨보았다가
거금을 주고 구입했을지 짐작이 간다.
그래서 이 기원정사의 정식 명칭은 '제따의 숲,
아나타삔다다의 정원'이라는 뜻의
제따와나 아나타삔다다라마
(Jetavana anāthapiṇḍadārāma)이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 번역한 명칭이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独園이다.
이 명칭은 다분히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승단에 대한 기부자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함이다.
중국의 법현(法顯, 338~422)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슈라와스띠에는 200여 가구가
남아 있었으며, 원래 7층이었던
제따와나의 비하라(vihāra, 사원)는
불 타 없어졌지만, 2층으로 새롭게 조성한
비하라가 이를 대신하여 여전히 건재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제따와나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은 법현을
맞이하며, 먼 타지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
현장(玄奘, 602~664)이 이곳을 찾았을 무렵에는
이미 건물이 기울고 무너져 터만 남았다고 했다.
이후 12세기에 복원되어 건물들이 들어섰으나
다시 버려져 오랫동안 밀림 속에 묻혀 있다가,
법현과 현장의 기록에 의거해 1863년
알렉산더 커닝햄(Alexander Cunningham,
1814~1893)이 발굴하여 오늘에 이른다.
제따와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간다꾸띠(Gandha-kuṭi)이다.
간다(gandha)는 '향기'라는 뜻이고,
꾸띠(kuṭi)는 '작은 집'이라는 뜻이다.
즉, 간다꾸띠는 '향기 나는 방'이라고 하여
부처님께서 사용하던 공간이다.
물론 지금 간다꾸띠라고 여겨지는 장소가
그때의 건물 일부가 아님은 물론이고,
그 자리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슝가 왕조(기원전 185~75년)의
바르후트(Bharhut) 불탑 기둥과 산치(Sanchi)
대탑 기둥에 새겨진 제따와나의 조각을 보면
분명 바르후트 불탑 2개, 산치 대탑 3개의
작은 집이 묘사되어 있다. 그 작은 집의 이름이
각각 간다꾸디, 꼬삼바꾸띠(Kosamba-(kuṭi),
그리고 까로리꾸띠(Karori-kuṭi)인데,
각 기둥에 묘사되어 있는 집을 살펴보면
둥근 지붕에 말굽 모양의 처마가 있는 작은 집이다.
몇 날 며칠 비가 계속되는 몬순의 우기가 오면,
정사의 작은 집에서 머무르시던 부처님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제따와나 경내에는 아나타삔다다가
심었다고 하는 한 그루 큰 보리수가 눈에 띈다.
사람들은 이를 아난다(Ananda) 보리수라고 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보드가야의 보리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보리수라고 한다. 하지만 겨울이라 그런지
수령 때문인지 생기를 잃어 안쓰럽다.
한 바퀴 둘러보니 너무나 한적해서 헛헛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깔끔히 정돈된 모습에서
세월의 무상함이 더욱 서글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내를 돌아보다가 유적의 서쪽 끝에서
아직도 발굴을 마치지 못한 곳을 보았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움푹 들어간 그곳의
비탈면에는 미처 모두 드러내지 못한 적층된
적색 벽돌이 반쯤 드러나 있었다.
이상하게도 폐허에 가까운 그 모습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아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같은 제따와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 전에는 이곳에 부처님께서 계셨을 것이지.",
"현장 스님이 목격한 제따와나도
이런 모습이었을까?"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 광경을 머릿속에 저장해두었다.

## 1500년 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3, 24, 25년도 3연속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 마음을 비우다 쉼 마음을 채우다



**당일형**
- 108배 및 염주 만들기
-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 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 저녁/새벽예불
- 세조길 걷기 명상

**평일 체험형**
- 108배 및 염주 만들기
- 향기명상 (Aromatherapy)
-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 선명상 (1박2일, 2박3일)
- 세조길 걷기 명상
- 수정봉 걷기 명상
- 스님과 차담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 삼재속옷기증



병오년 삼재풀이 기도에 동참해 주신
신도님께서 보시한 새 속옷은 음성미타사
'밝은 언덕 노인요양원'과
승가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새해에 지은 보시공덕으로 한해 무장무애하시고
복된 기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2026. 3 법주사 행사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음1.13<br>삼일절 | 2 14<br>대체공휴일 | 3 15<br>정월대보름<br>동안거해제<br>동안거백일기도회향 | 4 16<br>미륵재일 | 5 경칩 17<br>방생법회 | 6 18<br>지장재일 지장회법회 | 7 19<br>광명진언기도 |
| 8 20<br>혜정대종사다례 | 9 21<br>불교대학 입학식 | 10 22 | 11 23 | 12 24<br>관음재일 | 13 25 | 14 26 |
| 15 27 | 16 28 | 17 29<br>법주사 국악합창단 개강 | 18 30 | 19 2.1<br>초하루<br>신중기도입재 | 20 춘분 2 | 21 3<br>신중기도회향<br>다라니독송기도 |
| 22 4 | 23 5<br>다도반법회 | 24 6 | 25 7 | 26 8<br>약사재일<br>출가재일 | 27 9 | 28 10 |
| 29 11 | 30 12 | 31 13 | | | | |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입춘기도 및 삼재풀이





보월대선사 다례





합동차례 / 불교대학 면담





정초기도 입재

●말사 소식



덕원스님 임명(문화국장)



법명스님 임명(대원사)



혜도스님 임명(구절사)



혜우스님 임명(문안사)



## 미륵재일기도 – 3월 4일 수요일 오전10시 미륵전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매월 음력 16일 올리는 기도입니다.

## 지장재일기도 – 3월 6일 금요일 오전10시 명부전

중생구제를 대원력으로 삼으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고 공양을 올리며
연이 닿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 광명진언기도 – 3월 7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언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초하루 신중기도 – 3월 19일 목요일 오전10시 대웅보전

신중기도는 매월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시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3월 21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구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생일불공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 없이 복된 날에 부처님전에 정성드리는 인연을 지으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 043)**543-4755 , 010-6732-0133**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기도당일은 법회준비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법주사)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속으로!"

# 아름다운 법주사 법주회·국악합창단·다도반 법우님을 모집합니다

### 법주사 법주회 회원모집

법주(法住)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문다는 뜻으로 오직 법주사와 함께하는 신심 있는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나인 보시행을 봉사와 신행을 통해 실천하는 법우회입니다.
법주회에서는 병오년 새해 법주회와 함께하실 새로운 법우님을 기다립니다.
법주회 활동을 통해 불제자로서의 의미를 찾고 뜻이 맞는 법우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심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분** : 환희주 (김영숙보살님) 010-9423-3858 / 혜명심 (채연화보살님) 010-5171-4172

### 법주사 국악합창단 모집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아름다운 음성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 담아
국악합창단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주사 내 모든 행사에서 고운 음성 공양하며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불법의 홍포에 기여하고 법주사의 각종 봉사활동도
함께해 주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단원들을 기다립니다.

■ 개 강 : 2026년 3월 17일 ■ 강 사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소리꾼 함수연 선생님
■ 연 습 : 1, 3째주 화요일 10시 / 청주 전법회관

**함께하는 분** : 금선화 (연용덕보살님) 010-5465-0480 / 무진향 (곽나윤보살님) 010-5482-5862

### 다도반 회원모집



차(茶) 한잔에 담긴 선(禪)의 지혜, 다도반 도반을 모집합니다.
맑은 차 한잔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전통 다도의 깊은 예와 지혜를 배우며
함께 수행할 인연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법주사 산사의 고즈넉함 속에서
차와 함께 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세요.

**함께하는 분** : 보문심 (진순자보살님) 010-5498-5546



# 승려복지 후원 안내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불자님들의 승보공양은 스님들께서
수행과 전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법의 수호와 홍포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널리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신도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이 스님들께는 큰힘이 됩니다.

**■ 승보공양 후원동참자**

백동윤 이슬기 최규연 김순자 김창순 김규영 최성락 박근식 김명숙 김태홍 민혜숙
이현자 김길환 유상완 김진식 연용덕 노동임 서현숙 수도원

**승보공양 동참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매월 2/4째 수요일은 원주실 휴무일입니다. 원주실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안내



대웅보전 세분의 부처님과 수행정진하시는 스님들께 무량한 공덕을 담아
가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는 복전福田의 으뜸이며 여래의 웃옷이며 보살의 큰 옷"이라며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가사는 불보살님의 몸을 보호하며
수행자로서의 표상이었습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삼보의 한 존재인 승보를 보호하고
불자로서 불교를 수호해 나가는 일이기에 가사불사는 가장 중요한 공양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법佛法과 불성佛性의 상징인 가사를 공양하는 일에 두루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고 현세와 내세에 청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가사불사회향 대법회** : 2026년 **5**월 **1**일 금요일

■ **삼존불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가족 **100**만원 (세분 부처님의 가사집에 성함을 올려드립니다)

■ **승보공양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분 **40**만원

※ 법주사 스님들께 가사지어 올려드리는 불사로 스님의 가사에 공양올리신
불자님 성함 올려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38-2785-53**(법주사)

## 병오년 산신재일 기도안내



예로부터 큰 산의 수호신인 산신님께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산신기도는
그 성취가 빠르다 하여 사업성취 학업성취 건강성취 자녀를 바라시는 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속리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명산의 하나로 속리산 산신님의 위신력에 관한
크고 작은 수많은 영험담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청정도량 법주사에서 속리산 산신님께 지극정성 기도 올리시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수월하게 이겨내고 마음에 간직하신 소중한 소원들을 원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일정** : 2026년 **4**월 **28**일(화) ~ **5**월 **2**일(토) 산신재일 회향

**동참보시** : 한가정 **3**만원